

CAB과 IEC의 집중 분야

새로운 분야 적합성평가 관심

CAB과 IEC에서는 신수요 분야의 적합성평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도 이들의 적합성평가를 참고해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주요 적합성평가에 대해 소개해 본다. <편집자>



CAB WT CAC, 풍력발전용 터빈 인증자문위원회 (Wind turbine certification advisory committee)

풍력발전용 터빈 적합성평가는 CAB이 향후 몇 년간 집중할 분야이다. TC 88(풍력발전용 터빈)측의 지원으로 CAB은 최근 WT CAC(풍력발전용터빈 인증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첫 회의는 지난해 5월 미국 애너하임에서에서, 두 번째 회의는 지난해 9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됐다. 두 회의 모두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높았다. 회의에는 13개국을 대표하는 41개 기관 48명의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현재 풍력발전용 터빈의 IEC 적합성평가에 대한 향후 방향과 준비작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CAB WG의 작업방식 구성, 임원진 등 일부가 결정되었다. 또, TC 88과 협력하는 동안 작업반은 합동작업반의 형식을 갖지 않는다. 향후 의제는 정관 개정 및 설명과 작업프로그램 및 작업 방식 준비 등이다.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차기 회의는 2월 북경에서 개최된다.

시스템-레벨 적합성평가

(SLCA: System-level Conformity Assessment)

CAB은 MSB의 시스템-접근방식 권고를 따르고 자체 특별위원회 작업을 후속조치하기 위해 WG 16(적합성평가에서의 시스템 접근방식)을 설립했다. WG16은 전문가를 소집해 의장을 선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시스템 접근방식과 표준, 적합성평가와 현 체제에 근거하여 적용된 용어 의미를 사용한 SMB와의 긴밀한 협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 사안은 복잡다단하고 국제적인 구조의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술위원회는 산업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때때로 다른 표준 개발기구의 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연안 풍력 발전지대를 예를 들면, SLCA는 지리적 이식(바람의 위치, 존재 및 강도, 해안까지의 거리 및 기준선으로 연결되는 기술), 토목공학 및 건설, 기술 및 설계검증, 형식시험 및 그 외 많은 것을 구성하는 프로젝트 인증(project Certification)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 투자자는 그들의 투자가 모든 분야에서 바람직한 것임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드를 사용하고 전기기사의 수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IT 전문가와 같이 동일한 언어를 항상 사용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상·하향식 방식을 통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새로운 사항을 기존 요소와 통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일부 해법은 마련되어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는 앞으로도 많은 작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전기에너지 효율성(E3) 적합성평가 활동

전기에너지 효율성 관련, CB WG 12가 모든 국가의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과 법령을 5년간 활발히 연구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IEC 연계 국가 프로그램(IEC Affiliate Country Programme)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에 질의서를 배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50개국 이상이 응답한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은 분명 수많은 국가의 주요 이슈이고, 관련 정책과 법령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부분에서 구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하나의 사안은 이른바, 'E3의 일반적인 표지화'이다.

스마트그리드 적합성평가

스마트그리드는 향후 시스템 수준의 적합성평가가 성능 수준을 검증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안심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될 분야가 될 것이다.

IEC 적합성평가시스템 현황

2010년 시스템 관련 결산이 CAB에 의해 승인을 얻었다. 모든 시스템은 뛰어난 재무 건전성을 증명했고 모든 측면에서 잘 개발되어 있었다.

해양 에너지 적합성평가

해양 에너지 적합성평가는 CAB이 집중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분야이다. 목적달성을 위해 TC 114(해양 에너지)측의 지원 하에 지난해 6월, WG 15(해양 에너지 적합성평가)를 설립했다. 첫 회의가 지난해 1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됐다. **185**

